



침팬지와 **사람** 염색체의 기원

진화를 사실로 믿고 있는 과학자들은 침팬지와 사람이 600만년 전에 살고 있었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각각 진화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침팬지와 사람은 유전정보가 98.5% 혹은 96%나 똑같다는 조작 된 보고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침팬지의 염색체 수와 사람의 염색체 수가 다른 것이다.

사람은 23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침팬지는 24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의하면 침팬지와 사람은 처음부터 각각 다르게 창조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 간단한 창조를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24쌍의 염색체를 가진 공통조상에서 사람으

로 진화 되는 과정에서 작은 염색체 2개가 1개로 융합이 되어 23 쌍의 염색체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 된다!). 진화론자들은 그 증거가 사람의 2번 염색체 속에 들어 있다고 진화론에 유리한 데이터들을 보고하여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정보가 “99.4%가 동일하다”, “98%가 동일하다”, “95%가 동일하다”는 등 진화론을 광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창조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들은 진화론에 불리한 데이터는 감추고 유리한 데이터로만 그 허위 숫자들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지금까지 발표 된 여러 데이터들을 정직하게 비교하면 최대 87%~ 81%의 동일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reation Truth 2012년 12월호 참고). 물론 앞에서 언급한 염색체 2 개가 1 개로 융합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알팍한 지식에 근거한 (거짓)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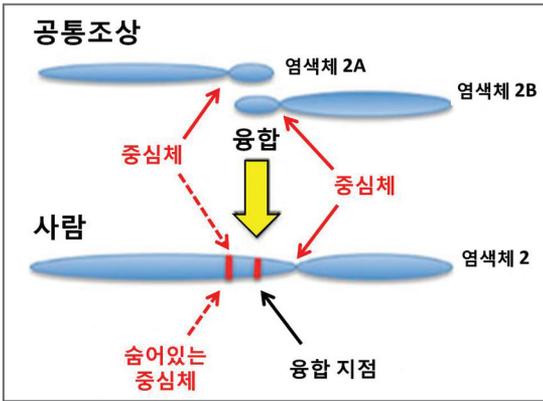
염색체는 현미경상에서는 아무리 작게 보여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엄청난 정보 집적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 덩어리이다. 염색체 정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를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염색체 속에 들어 있는 DNA의 정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예, DNA hybridization 과 염색체 염색법 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쉽지는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동안 진화론자들은 이런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2번 염색체는 진화 조상의 염색체 2 개가 융합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 왔다. (또 다시 창조과학자들은 이 주장을 확인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진화론의 염색체 융합모델(우측 그림)에 의하면 2 개의 작은 염색체의 머리 부분이 서로 붙어 길이가 긴 사람의 염색체 2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를 염색해 보거나 DNA hybridization을 해 보면 그림에서처럼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융합모델의 문제점들

- 융합된 것이 사실이면, 융합 된 지역에는(TTAGGG)_n의 염기 순서가 수 백 번 씩 반복 되어 있어야 하는데 (TTAGGG)_n 수가 너무나 적다. 두 염색체가 머리끼리 융합이 되었다면 융합 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대에는 (TTAGGG)_n에 상보적인 (CCCTAA)_n의 염기 순서가 또 수 백 번씩 반복적으로 발견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욱이 염기의 삽입과 결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융합 지역에서는 (TTAGGG)_n의 염기 순서는 아예 찾아 볼 수도 없다.

- 이 융합 지역에는 24개의 가능 유전자와 16개의 유사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상과 유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침팬지의 작은 두 염색체의 융합 지역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다. 이 중에 두 개의 유전자는 가상의 융합 된 염색체



지역의 양쪽에 걸쳐서 존재한다. 두 염색체가 붙어서 우연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 숨어 있는 중심체 염기서열 (aliphoid DNA)은 중심체의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정보는 중심체가 아닌 지역에서도 수백 번 발견 된다. 공통조상의 염색체 2A와 2B가 융합되어 사람의 2번 염색체가 되었

다면 중심체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하며, 중심체 하나가 갑자기 돌연변이 되어 기능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정상적인 2번 염색체가 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 융합 되었다는 원래 두 염색체의 끝 부분은 융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염기 순서를 가지고 있다. 잘못 된 염색체 융합이 일어나면 세포가 죽게 되므로 그런 개체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염색체가 융합 된 것이 사람의 2번 염색체란 주장은 과학적인 관찰 결과를 무시하는 해석이다.

이런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염색체가 융합이 되면 진화가 일어나는가? 융합이 된다고 유전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 48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도 있고 46개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람의 2번 염색체에 들어 있는 정보가 침팬지 염색체 2A와 2B에 들어 있는 정보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도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주장이다. 아직까지 사람 염색체와 침팬지 염색체의 유전정보가 정확하게 1:1로 비교되지 않았다. 아주 작은 염색체인 Y 염색체를 서로 비교 했을 때 침팬지와 사람은 3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침팬지 염색체 2A와 2B를 사람 염색체 2번과 비교할 때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 될 것이다.

Junk DNA같은 진화론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학문 발전이 지연 되었던 것처럼 조상 염색체가 융합 되었다는 진화론의 아이디어 때문에 2번 염색체의 그 가상 융합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지연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유전정보를 보거나 화석 증거를 보거나 현재의 생물들이 진화되지 않고 종류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진화가 아니고 성경의 창조가 사실이다. 군데 군데 게릴라처럼 나타나는 진화의 증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아주 작은 데이터를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해서 전체를 뒤집으려는 진화론자들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속임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 되었던 전형적인 수법이다.

24쌍의 염색체를 가진 침팬지 따로, 23 쌍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로, 창조 6일째 각각 창조 된 것이다. 



대기와 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
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6-7)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구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등장했던 수
면, 그 물을 둘로 나누고 계신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넓게
퍼진 공간을 의미한다. 이 궁창은 창세기 1장에 세 번 등장한다. 둘째, 넷째, 다
섯째 날이다.

둘째 날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실 때 사용된 궁창, 넷
째 날은 해, 달, 별들을 떠 있게 하신 궁창(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창
1:14), 다섯째 날은 새가 나는 땅 위의 궁창(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창
1:20)이다. 여기서 넷째 날의 궁창과 다섯째 날의 궁창은 쉽게 구분이 된다. 넷째
날은 별들이 있는 오늘날의 우주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다섯째 날은 새가 나는
오늘날의 대기권이다. 우리나라 말에도 “하늘의 별들”과 “하늘을 나는 새”와 같
이 동일하게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하듯이 성경도 하늘의 궁창이란 단어를 동일
하게 사용했다. 둘째 날의 궁창이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지는 여기서는 분명하
지 않다. 어쨌든 궁창이란 말은 “넓게 퍼진 공간”을 총칭한다.

대기권을 살펴보자. 순수한 건조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가 일
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지표에서 지상 80km까지 이 화학적 조성 비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가운데 가장 친숙한 기체는 산소일 것이다. 산소는 생
물 호흡에 절대적이다. 산소가 없으면 물론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이유
로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 경우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
다. 산소 함량이 너무 높으면 불이 너무 잘 붙게 되고 일단 불이 나면 소화하기
도 어렵다. 즉 산불이 나게 되면 진압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힘들다는 의미다. 물

론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적어져도 그 반대 현상으로 불을 붙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붙이는데 지금보다 훨씬 힘들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당장 호흡이 힘들어진다. 산소 함량이 너무 높으면 너무 빨리 썩을 것이며, 낮으면 안 썩어서 문제다. 이 산소 함량은 지구가 지금의 안정된 모습을 갖추는데 절대적이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인 질소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원이다. 비 온 후에 식물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은 비가 대기 중의 질소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큰 이유다. 식물에게 다량이 필요한 질소는 토양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데, 가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수분자체의 부족도 있지만 질소의 부족이 심각하게 뒤따르게 된다. 또한 풍부한 질소는 안정한 대기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어찌 이것뿐이라! 대기의 완전함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그 조성을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기는 특별한 설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창조과정 가운데 시간이 들 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조화롭지 못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대기로 점점 조화롭게 된다는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과정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완전해야 되며 그 대기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야 한다.

시편기자의 아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

물에 대하여도 그 경이로움은 끝이 없다.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H₂O) 분자다. 이 수소와 산소는 모두 기체지만 일단 상온에서 합하여지면 액체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수소는 그 자체로 물질을 타

만들 수 있으며, 산소는 그 불이 붙은 것을 지속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오히려 불을 끄는데 사용되는 물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원자들이 누구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이다. 현대 화학이 시작되었을 때 화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빠져들게 만든 것이 이런 물질의 다양한 변화였다.

그리고 일단 분자로 결합하면 이 물 분자는 여간 해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 결합된 모양 때문에 전기력을 띄우며 대부분의 물질을 녹이는 놀라운 용매역할을 수행한다. 마시는 물이 수많은 광물질(minerals)을 갖고 있는 이유도 물이 지하수나 냇물 사이를 흐르는 동안에 돌들을 용해시켜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은 특별한 방울모양을 보여주는데 비 온 뒤 거미줄이나 오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방울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물의 특수한 표면장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세관현상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한 결과이다. 모세관현상은 중력과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인데, 이런 성질은 식물이 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필수적이다.

물은 섭씨 영도 이하로 떨어지면 고체인 얼음으로 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물질들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물은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면 부피가 늘어난다. 즉 물은 약 4℃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여준다. 이런 성질은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만들며 호수가 얼 때 표면부터 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이 표면부터 어는 얼음이 완전한 절연체 역할을 담당하여 어느 정도 얼음 결정이 성장하다가 정지하며,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겨울 내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한다.

이어지는 글은 13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한 편의 시라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창 1:8)

지구가 두 번째 자전하며 둘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공간, 물질이 이루어가는 직선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의 파급은 기독교인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에 큰 혼돈을 주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대한 자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때 성경보다 진화론을 더 신뢰했던 신학자들은 두 가지 자세를 취하였다. 하나는 진화론과 “타협”이며, 다른 하나는 “회피”였다. 타협이론이란 이미 언급되었던 간격이론(창세기 1장 1절과 2, 3절 사이에 수십억 년을 끼워 넣으려는 이론), 유신론적 진화론(창세기 하루를 수억 년의 지질시대이론, 하나님께서 간단한 생물을 창조하신 후 수십억 년의 진화와 멸종을 허락하셨다는 이론), 점진적 창조론(하나님께서 진화 순서대로 창조와 멸종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시고 최후에 아담을 창조했다는 이론) 등이다.

한편 진화론을 언급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조가설”이다. 실제로 이런 시도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조가설은 한 마디로 진화론과 대조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시, 설화, 예배문처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문학작품으로 접근하려 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 셋째 날은 물과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 넷째 날은 그 빛을 내는 해, 달, 별을, 다섯째 날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여섯째 날 땅에 사는 육상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 앞의 삼일 간의 순서에 맞게 다음 삼 일은 이를 채우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는 식이다. 아래 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눔	넷째 날	해, 달, 별 창조
둘째 날	물을 궁창으로 나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셋째 날	물과 식물의 등장	여섯째 날	육상동물과 인간의 창조

위의 표를 보면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도 위와 같은 패턴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날을 보면, 단지 빛과 어둠만이 등장하지 않는다. 시간, 하늘, 지구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1장 1절부터 등장해서 창세기 1장에 20번이나 언급되는 땅(earth)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첫째 날의 2절을 보라. 어두움을 말하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이미 창조된 지구에 대한 묘사다. 둘째 날을 보면 궁창 위의 물에 대하여는 다섯째 날 언급이 없으며 타당한 순서로 보자면 물고기는 둘째 날이 아닌 셋째 날 창조된 바다를 채웠다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셋째 날을 보자면, 바다가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은 언급도 없다.

위의 예는 단지 여러 구조가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기서 구조가설에 대한 모든 예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구조가설들은 늘 불완전하며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대한 이런 시도는 많은 크리스천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도가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 진화론을 발견할 수 있다.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이미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다! 진화의 반대는 유일한 역사이다. 역사란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역사란 거기 계셨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말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순서를 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과정과 순서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까지 모두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었다. 그리고 성경

은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구조가설을 만들면 성경을 못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창조과학탐사

매년 두 번씩 참석하는 안산동산교회

지난 9월 13-19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참석하고 있는 안산동산교회의 다섯 번째 참석입니다. 매년 그렇듯이 참석한 본인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전수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2014년 1월 5-8일 이재만 선교사를 초청해서 신년부흥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랜드캐년 Desert View Point에서 일본팀

선교의 도구로써 창조과학탐사

지난 9월 22-27일 일본인 창조과학탐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이 일본 창조탐사로는 여덟 번째며 본토에서 참석하는 것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Love Creation(회장 사사키 미츠오)을 중심으로 참석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찍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간 일본인들에게 창세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복음이 선명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 중에 0.2%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창조과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중국인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탐사여행 후에 다섯 명의 참석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습다. 이번에도 귀한 열매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이 닫힌 상태에서 더욱 감격했던 창조과학탐사

지난 9월 30일-10월 3일 뉴저지 초대교회(담임목사 한규삼)와 이어서 10월 3-10일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의 창조과학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창조탐사는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으로 인해 그랜드캐년을 비롯한 각 국립공원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립공원대신 Valley of Fire, Marble Canyon, Sedona, Little Colorado River, Meteor Crater Land Mark, Red Canyon, Glen Canyon Dam, Frenchman Mountain, Crowley Lake, Owens River Gorge, Alabama Hills, San Diego Creation Museum, La Jolla Beach 등으로 일정을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 더욱 진한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세도나에서 안산동산교회

행하신 증거들은 국립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도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창조과학탐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학생 창조과학탐사 연기

이번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으로 인한 국립공원 출입불가로 오는 10월 말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출입이 재개되는 일정에 따라서 새로운 일정이 정해질 것입니다.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지난 9월 10일부터 제14기와 15기 시카고 지역 창조과학학교가 노스필드장로교회(담임목사: 이병훈)와 한미장로교회(담임목사: 주용성)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강은 11월 12일과 13일 예정이며 시카고 지역 창조과학학교에 대한 문의는 이동용 박사(630-400-6114)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Little Colorado River에서 바이블칼리지





Marble Canyon에서 뉴저지 초대교회



세미나 시리즈

9월 12일부터 4 주간 매 주 목요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목사: 한의준)에서 열렸습니다. 또한 9월 13일부터 10주간 매 주 금요일 시카고 뉴라이프교회(담임목사: 장춘원)에서, 10월 6일부터 4 주간 매 주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에서 시리즈로 창조과학 세미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PCA 서중노회(9월 11일), 오렌지한인교회(10월 13일)에서 세미나가 진행 되었습니다.

ITCM 지원자 모집

10월 14일 현재 6 명을 1차로 선발하였습니다. 2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선발 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12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8주간입니다. 참가자들이 가장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차 ITCM은 2014년 6월 말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문의: 최우성 박사(m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전화 번호 (562)868-1697
 창조과학선교회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기존 전화 번호로도 통화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새 전화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년 동떨어진 꽃 화석들

최근 유럽의 과학자들에 의해, 지층 속에 있는 꽃식물 화석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약 1억 년 정도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기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가정들에 도전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 1억년의 간격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츨리(Hochuli)와 파이스트-버크하트(Feist-Burkhardt)은, 한 식물과학 저널(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북부 스위스의 시추조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발견된 꽃가루 입자 화석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들은 “이 논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속씨식물의 꽃가루 화석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화석들은 그동안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트라이아스 중기(약 2억4천3백만년 전) 화석보다 1 억년 정도 더 앞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논문에 실린 화석 사진들은 꽃식물의 꽃가루 입자 특징들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그 보고서는, “설명한 꽃가루 입자화석들은 속씨식물의 꽃가루의 모든 필수적인 특징

들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이 아래 지층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 다른 종류의 꽃가루 화석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화석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대부분 대륙에서 발견되므로 약 350만 년 만에 급격히 진화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대륙들로부터 이동해 온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트라이아스의 지층에서 다양한 꽃식물들이 갑작스레 출현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들은 왜 화석들이 갑작스럽게 발견된 후에 중생대 쥐라기 약 1억 년 동안 화석기록이 없다가 백악기에 다시 나타나는지 설명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우리가 이 속씨식물들의 꽃가루 화석이 중생대 전기인 트라이아스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왜 이 화석들이 중생대 중기인 쥐라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형태학적

차이뿐 아니라 약 1억 년의 화석기록 간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꽃가루 입자들이 아마도 다른 계통(stem relatives)의 속씨식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추측에 근거한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관찰에 근거한 것인가? 이 꽃식물 화석들이 아래층에 있으므로 진화적인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환논리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식물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꽃가루들이 수백 만년 동안 진화한 것이 틀림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주요 역사 기록에는 트라이아스기같은 장구한 시대에 대해서는 힌트도 찾아 볼 수 없다. 성경은 이 화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더 나은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로, 성경은 순환논리나 추측에 근거하지 않고 “증인”들에 근거한다. 증인들은 이렇게 썼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

둘째, 성경은 속씨식물이 창조때부터 모든 다른 동식물들과 함께 존재했음을 증언한다. 이것은 화석의 “급격한 출현”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셋째, 성경은 생명체의 흔적들이 화석의 형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전 지구적인 홍수사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홍수 맥락에서 보면, 트라이아스기의 식물들은 진화론적인 ‘시간’에 의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홍수 시기에 각각 다른 ‘생태 위치’에서 온 퇴적물에 의해 구별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타임라인은 왜 아래 지층에서 발견되는 이 꽃가루 화석들이 오늘날의 식물들의 것과 매우 유사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창조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기 때문이다. 

Flower Fossils 100,000,000 Years Out of Place?

Brian Thomas, M.S. ICR Science Writer / 번역: 조희천

5쪽에서 이어지는 글

지구 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물의 대용품은 없다. 어떤 과학자도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없다. 단지 변하지 않는 물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할 뿐이다. 이런 완벽한 물의 성질은 누군가 처음부터 이런 화학법칙을 넣었다는 해석 없인 도저히 해석 불가능하며, 물이 이런 성질을 갖추었을 때만 우리와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만 보더라도 시간이 아닌 전능하신 분의 지혜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물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다. 물의 삼태가 등장하고 표면부터 어느 물의 성질까지 물어보고 계신 것이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물은 돌 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욥 38:28-30). *이재만(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개인 빙하시대 탐사

6/20 - 22, 2013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진화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는 여행이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던지 성경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써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참석자

삶에서 늘 소원하며 바랬던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 되는 것인데, 어김 없이 다시 한번 확인 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더 사모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확증하자는 이 사역을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예림<새 생명 오아시스교회>

지난 1월 탐사여행을 통해 내 안에 이중적 사고방식(진화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번 탐사여행에서 돌덩이 같은 성경을 바라보는 확신이 내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미정

우연이라 생각하고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하시었음을 탐사 후에야 알았습니다. 믿고 있던, 아니 알고 있던 모든 바탕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엄마”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르치려 하셨던 이 재만 선교사님의 믿음을 높여드립니다. -안승억<노량진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어두운 현실 안에 창조과학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 주셔서 영적 회복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특히 2세대에게 믿음의 전수를 위해 수고 해주심 감사합니다. -무명

이번 빙하시대 창조과학 탐사는 2번째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Grand Canyon 탐사로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 하였었다. 이번의 탐사 느낌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 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나의 맘속 깊이 조화를 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 분 이라는 것을 재확인 해주는 여행이었다. 정말 이재만 선교사님과 조역할 한 분께 감사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필인<오렌지 한인교회>

이번 탐사여행에 참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소 읊기가 어려웠는데 빙하시대와 읊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는 읊기가 더 이해하기 쉽게 되리라 믿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재만 선교사를 통해서 하

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김사목<무리에타 장로교회>

“욥기”는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만 알았으나, 빙하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인서 임을 알고 벽찬 감격을 갖게 됩니다. -이범식<오렌지 한인교회>

창조는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확실한 증거와 확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궁자

몇십 번 성경을 통달하게 읽었지만, 미궁 속에서 알지 못했던 성경의 구절을 해석 속에 이해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자 주 하나님께 이런 귀한 시간과” 이제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뼈 속 깊이 느끼게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이 열리고 소리를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 하면서 감사 드립니다. -최학선<오렌지 한인교회>

자연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 자녀를 훈련 시키시는 하나님 자연의 변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연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장수<자운교회>

아름답고 장엄한 요세미티를 보고 감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기에 좋으셨던 자연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퍼즐처럼 잘 맞아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릴 뿐입니다. -계인호

성경을 영적으로만 보고 살아온 신앙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가 현재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더 보탬이 되어 감사합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되기를 바라며 더욱 다음 세대에 전수 되기를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김신열<뉴저지 베다니교회>

저는 믿음으로 성경이 진리 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거를 듣고 보게 되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더 확증하며 우리의 자녀, 손녀들, 주위 가족들, 교회 성도들에게 창조과학탐사여행을 전하고 꼭 이들에게 진화론의 헛된 이론을 버리고 성경의 창조 역사를 입을 열어 증거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어두운 현실 안에 창조과학선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 주셔서 영적 회복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특히 2세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위해 수고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영순<오렌지 한인교회>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 11/1-3 아리조나 새생명장로교회 (최우성, 김선옥), AZ
- 11/2 ANC 집중세미나 (이재만), CA
- 11/3-24 한국방문(이재만), 한국
- 11/5 햇볼트리니티 CEO스쿨(이재만), 한국
- 11/9 JAMA Orange County Conference, 최우성(KM), 김선옥(EM)
- 11/19-21 창조과학탐사 (LA아름다운교회), 최우성
- 11/25-29 대만 은혜 국제신학교(이재만), 대만

- 12/9-20 World Mission Univ. (이재만, 최우성)
- 12/11 맨하탄 온누리교회(이재만), NY
- 12/13 뉴저지 온누리교회(이재만), NJ
- 12/23 창조과학탐사 (샌디에고 한빛교회), 이재만
- 12/26-28 창조과학탐사 (나성 순복음교회), 이재만, 최우성

2014년

- 1/5-8 안산동산교회(이재만), 한국
- 2/7-9 네이퍼빌 온누리교회(이재만), IL
- 2/20 Liberty seminary(이재만), VA
- 2/24-27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재만

- 4/20 부활주일
- 4/24-26 North Bay 장로교회(이재만), CA
- 5/2-8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5/22-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